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율법 제목 : 율법과 율법주의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21절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혈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2:16-21)

성경에는 의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의(義)란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말한다. (양의 옷이 의다. 곧 나를 위해서 양이 땀가를 치루고 희생했다는 것이 의다.)

그런데 의란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된다.

의에 대한 기준이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하게 마련.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만 진실하고 변함없는 진짜 의라고 본다.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명문화 된 것이 구약의 율법이다.

율법에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목적과 뜻(율법정신)이 있다. (다분히 윤리적)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행위만 남고 목적과 뜻은 사라진다.

후손들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마귀는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율법으로 사람을 옭아맨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 뿐만이 아니라, 율법정신이다.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다.

행위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게 되며, 변하지 않으면 정신이 바뀐다.

그런데 율법이 시대에 적절하게 올바른 행동을 찾지 못하면 그 행동은 가식이 된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율법주의의 현상 중 하나라고 본다. 율법은 좋은 것이로되, 율법주의로 변질되면서 율법의 본래 정신이 퇴색된다.

율법주의의 특징

행위의 습관화

행위에 대한 자신감(행위가 시대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감이 계속된다면), 자만심, 정죄감

행위에 대한 감옥.(가식적이며 위선적이 될 경우; 율법주의적 위선이란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뜻-즉 율법적 행위가 정의라고 믿기 보다는.)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2:4)

율법주의자들은 그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솔직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의 의가) 다르다면 누구의 의가 정의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면 그분의 의가 정의인 것이다. 그런

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는 뜻이다.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롬4:13)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행위가 정의인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만 계시 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증거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릴 수 없느니라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을 뜻한다.

죄는 악한 것이며, 무가치한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며, 불의이며, 반드시 형벌이 따르며, 반드시 손해가 따르는 것이다.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람마다 자신의 환경과 직업등과 관련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되므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 힘들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기록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식들은 죄에서 벗어난다.

<수령에서 건진 내 딸>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주의에 대해서 죽고, 복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자.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